

- * 선정기업수 대비 신청한 기업수는 다소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입주신청을 하였음
- * 신청기업들이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자신의 사업 역량과 강점을 잘 접목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음
- * 일부기업은 어느 정도의 실적과 더불어 잠재성을 갖추며 미래육성기업으로 적극 추천함